

【논문】

## 암스트롱의 자연주의와 인과력의 원리\*

김희정

【주제분류】 형이상학, 분석철학

【주요어】 자연주의, 인과력, 엘레아인의 원리, 초월적 보편자, 결핍된 특수자

【요약문】 암스트롱의 자연주의에 의하면 실재는 ‘단일한 시공의 체계일 뿐’이다. 암스트롱은 초월적 존재자들이 시공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초월적 실재론자의 어느 대답도 논박된다는 식으로 그는 자신의 자연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그런데 암스트롱의 자연주의는 자신의 임재적(immanent) 보편자 실재론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지적된다. 이 논문은 그런 지적과 같은 입장에서 인과력의 원리를 중심으로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암스트롱의 논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I절에서는 약한 의미의 자연주의를 논박하는 암스트롱의 논증을 소개한다. 그리고 II절에서는 이 딜레마 논증의 첫 번째 뿔에 대한 암스트롱의 두 가지 지적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 논문의 III절에서는 딜레마 논증의 두 번째 뿔에 대한 암스트롱의 논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가 첫 번째 뿔을 논박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보편자의 존재와 그것이 시공의 체계와 연관을 맺는다는 것이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 I. 암스트롱이 약한 의미의 자연주의를 논박하는 딜레마 논증

암스트롱은 철학자들 대부분이 시공의 체계를 받아들이는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철학사를 살펴보면 파르메니데스, 라이프니츠, 헤겔, 브래들리 등의 관념론자들은 시공의 체계는 실재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이런 관념론적 입장은 선협적인 논증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므로 이 입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sup>1)</sup> 암스트롱은 경험주의자로서,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는 후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선협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시공의 체계만을 받아들이느냐 그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다른 초월적 존재자들을 받아들이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존재론의 주요한 문제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강한 의미의 자연주의자는 시공의 체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약한 의미의 자연주의자는 시공의 체계와 더불어 신, 초월적인 보편자, 수, 초월적인 가치, 가능 세계들, 혹은 명제 등의 초월적인 존재자들 중 어떤 것을 인정한다. 암스트롱이 약한 의미의 자연주의를 논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시공의 체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 밖의 다른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을 따져본다. 그는 “초월적인 것이 시공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딜레마의 형태로 질문을 한다.<sup>2)</sup> 그는 어느 쪽의 답도 초월적인 존재자의 실재를 지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약한 의미의 자연주의

1) D. M. Armstrong (1977), pp. 261-2 참조.

2) D. M. Armstrong (1977), vol. I, p. 263 참조.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논증을 찾을 수 있다. “특수자들의 시공의 영역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를 포함한다.) 그 밖의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Armstrong, (1978), vol. I, p. 130). 여기서는 ‘시공의 체계’ 대신에 ‘특수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내용 상 중요한 변화는 아니다. 암스트롱에게서 시공의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 시공의 체계에 있는 특수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를 논박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강한 의미의 자연주의가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I. 딜레마 논증의 첫번째 뿔에 대해: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한다는 답에 대해

약한 의미의 자연주의자들은 시공의 체계 이외에 각기 다른 종류의 초월적 존재자들을 추가로 받아들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초월적인 보편자에 제한하여 그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초월적 보편자를 시공의 체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초월적인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에 대해 암스트롱은 우선 이 입장은 인과력에 대한 개념적,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1. 초월적 보편자가 가진 인과력의 개념적·논리적 문제

초월적 보편자 실재론자들은 초월적 보편자가 인과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암스트롱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초월적 보편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과력이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수많은 초월적인 존재자들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초월적 보편자, 수와 가치의 영역, 명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 가능 세계, 추상적 집합에 대해 유효하다. [...] 인과의 전형적인 경우에는 하나가 다른 것을 **변화시킨다**. 이로부터 만약 이런 존재자들이 세계에서 인과적으로 작용한다면 그것들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귀결된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들은 자연 세계의 어떤 특질들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아니면 자연에 어떤 상

황이 발생할 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압력**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개념은 전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렇게 주장되는 인과 작용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주된 난점이 된다. (원문 강조; Armstrong, (1977), p. 264)

이런 논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암스트롱의 논증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식화하겠다.

- ① 초월적인 보편자는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한다고 주장된다.
- ② 초월적인 보편자는 불변하므로, 그것이 행사하는 인과력은 전형적인 인과력이 아니다.
- ③ 따라서 그것은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위의 주장들 중 ②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월적인 보편자가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인과력이 전형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초월적 보편자는 다른 초월적 보편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범주의 존재자에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다른 초월적 보편자에 영향을 주지도 않으며, 또한 다른 범주의 존재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다른 범주의 존재자에 영향을 줄 뿐이다. 암스트롱은 초월적 보편자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가진 인과력은 전형적인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가 전형적 인과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그 자신이 변화할 수 없는 보편자가 전형적인 인과력을 가질 수 없다면, 암스트롱이 옹호하는 임재적 보편자도 마찬가지로라는 점을 필자는 논증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먼저 암스트롱이 전형적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가 이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인과관계를 보자.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정상적이던 유리창을 깨지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켰다. 이 경우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일정정도의 강도를 지닌 유리

창에 인과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이 돌맹이를 달리 기술하면, 어떤 힘(질량×가속도)을 가진 돌맹이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화한 것은 무엇이고, 전형적인 인과력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보편자인가, 특수자인가? 아니면 사태인가?

## 2. 암스트롱이 인정하는 범주들

전형적인 인과관계에서 인과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변화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암스트롱이 설정하는 범주들과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는 잠재적 보편자, 결핍된 특수자, 충만한(thick) 특수자, 사태의 범주를 인정한다. 그에 의하면, 보편자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시공에 예화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적 보편자라고 한다. 잠재적 보편자는 예화되지 않은 채 특수자와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고, 특수자와 더불어 하나의 사태 속에서 존재한다. 보편자와 더불어 존재하는 이 특수자가 바로 결핍된 특수자이다.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를 예화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예화가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예화를 관계에 의해 파악하게 되면 무한 퇴행에 빠지기 때문에 예화는 원초적이고 비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보편자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소급되는 잠재적 관계적인 보편자와 차별된다.

암스트롱은 특수자를 두 가지로 구별한다. 결핍된 특수자와 충만한 특수자가 그것이다. 결핍된 특수자는 보편자를 예화하여 사태를 구성하는 그런 특수자이다. 그것으로 인해 사태가 특수성을 획득하게 된다. 사태는 결핍된 특수자 때문에 보편자를 온전히 예화하고 있지만 범주적으로 특수자에 속하게 된다. 잠재적 보편자와 마찬가지로 결핍된 특수자 역시 그것이 예화하는 보편자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핍된 특수자와 그것이 예화하는 보편자를 생각 속에서는 구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분리할 수 없다고 암스트롱은 주장한다. 결핍된 특수자와 대조되는 충만한 특수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개별자(individuals)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들

을 예화하고 있는 것이다.

‘충만한’ 개념 [...] 속에서 특수자는 그것의 모든 속성들과 함께 고려된 사물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특수자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이 특수자가 되게 하는 것, 즉 그것의 특수성과 그것의 특수자가 아닌 측면들, 즉 그것의 속성들을 (분리하지는 못하지만)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특수자의 ‘결핍된’ 개념을 산출한다. 그것은 충만한 특수자의 모든 속성들이 제거된 것이다. (Armstrong, (1978), vol. I, p. 114)

다르게 이야기하면 충만한 특수자는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들을 예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사태이다. 모든 사태가 충만한 특수자는 아니지만, 모든 충만한 특수자는 사태이다. 그런데 자신이 예화하고 있는 보편자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될 수 있는, 결핍된 특수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충만한 특수자, 혹은 사태에 예화되어 있는 보편자들을 추상하고 남는 것, 즉 시공의 위치이다.

### 3.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변화의 대상과 인과력 수여의 주체

이제 암스트롱이 인정하는 범주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인과관계에서 무엇이 변화하며 인과력을 수여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1) 변화의 대상

암스트롱에게서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변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암스트롱은 인과관계를 보편자의 관계로 기술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태들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인과관계와 법칙적인 관계를 이차적인 관계에 의해, 즉 1차적인 보편자들 간의 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관계에 의해 설명하도록 나는 제안한다. 여기에 두 논제가 결부되어 있다. 첫째, 인과관계는 법칙적인 관계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칙적인 관계에서 하나의 보편자는 다른것을 필연화한다. F(F-ness)가 G(G-ness)를 필연화

하거나, 혹은 F임(being F)이 G임(being G)을 필연화한다. 또는 하나의 F임(being an F)(특수화된 보편자)가 또 다른 F임(being another F)을 필연화한다. (Armstrong, (1978), vol. II, p. 149)

위의 인용문에서 암스트롱의 첫 번째 논제는 인과관계가 법칙적인 관계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법칙적인 관계는 논리적인 필연성은 아니지만 일종의 필연적인 관계이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성에 불과하다는 흄의 법칙에 대한 이해와 다른 입장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법칙이 규칙적인가 필연적인가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관계항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칙의 본성 자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다.

그의 두 번째 논제를 보자. 암스트롱은 인과의 관계항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제시하는 듯하다.<sup>3)</sup> 인과의 관계항이 보편자라고도 하고 특수화된 보편자라고도 한다. 후자는 바로 예화된 보편자로서 사태를 의미한다. 암스트롱에 의하면 모든 보편자는 궁극적으로 결핍된 특수자와 더불어 사태 속에 있으므로, 보편자의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태들의 관계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만약 인과관계가 보편자들만의 관계로 간주된다면 특수자가 그것에 연루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암스트롱에 의하면 보편자가 존재한다면 사태 속에서 존재하므로, 인과관계를 사태들의 관계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누군가가 던진 돌맹이가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예를 암스트롱이 설정하는 범주에 따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D. M. Armstrong (1978), vol. II, pp. 153-157에서도 그의 애매한 입장이 나타난다는 점을 오디(G. Oddie)도 지적하고 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G. Oddie (1982), p. 287 참조.

## &lt;전형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gt;

	원인	결과
㉠ 일상적인 표현	누군가가 돌맹이를 던짐	유리창이 깨짐
㉡ 개별자들의 관계	누군가가 던진 돌맹이	깨진 유리창
㉢ 사태들간의 관계	(사태 a) 결핍된 특수자 a가 일정정도의 힘을 가진 돌맹이의 속성(A)을 예화함	(사태 b) 결핍된 특수자 b가 깨진 유리의 구조적인 속성(B')을 예화함

㉠은 우리가 일상적인 맥락에서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개별자들의 관계로 표현해보면 ㉡와 같이 서술할 수 있다. 그런데 일상적인 개별자는 암스트롱 식으로 표현하면 충만한 특수자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태들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암스트롱 식의 범주로 궁극적으로 분석하면 ㉢가 된다. 즉 (사태 a)가 (사태 b')를 일으킨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태 a)가 (사태 b)를 (사태 b')로 변화하게 한 것이다. 이 때 인과관계의 관계항과 변화의 대상은 사태이다. 결핍된 특수자 b가 B(정상상태의 유리의 구조적인 속성)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고 있다가 (사태 a)로 인해 B'(깨진 유리의 구조적 속성)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게 된 것이다.

암스트롱이 옹호하는 임재적 보편자는 이런 전형적인 인과관계에서 변화하지 않았다. 변화한 것은 사태이다. 어떤 이는 B라는 보편자가 B'라는 보편자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명시적으로 보편자의 존재가 그것을 예화하는 사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보편자의 존재는 그것이 언제 예화되느냐에 무관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즉 어떤 보편자가 과거에 예화되었다가 지금은 예화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보편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보편자가 아직은 예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에 예화될 것이라면, 그 보편자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모든 보편자가 지금 예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특수한 보편자가 지금 예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예화되었거나 아니면 미래에 예화될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할 것이다. 예화의 원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rmstrong, (1989), pp. 75-76)

임재적 보편자가 예화에 의해 결코 변화할 수 없고, 없어질 수도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태에 의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돌맹이를 던진 것이 유리창을 깨지게 했다고 할 때, 유리창이 깨지기 전의 사태를 생각해보자. 이것을 암스트롱 식으로 표현하면, 결핍된 특수자  $b$ 가 깨지지 않은 유리의 구조적인 속성  $B$ 를 예화한 것이었다. 이제 유리가 깨어져서 그와 같은 정도의 강도를 가진 유리의 구조적인 속성이 더 이상 예화되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와 같은 정도의 강도를 가진 유리의 구조적인 보편자는 현재 예화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예화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보편자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번 예화되었기 때문에 그 보편자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할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 (2) 인과력의 주체

암스트롱은 인과력을 수여하는 주체를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에게 속성은 임재적 보편자이다.

[...] 보편자와 인과성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 [...] 나는 (a) 특수자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힘은 그것의 속성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제안한다. (b) 모든 속성은 그 속성을 가지는 특수자에 능동적 그리고/혹은 수동적 힘을 부여한다.(Armstrong, (1978), vol. II, pp. 43-44)

특수자가 인과관계에 연루되는 것은 그것이 예화하고 있는 보편자에 의한 것이지 특수자 자체가 인과력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자는 항상 그것을 예화하는 특수자와 함께 존재하므로, 인과력을 수여하는 것이 사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태를 구성하는 결핍된 특수자는 명백히 인과력을 행사할 수 없다. 사태가 인과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태 속에 있

는 보편자 때문이다.

(1)에서부터 여기까지 논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암스트롱의 임재적 보편자는 그 자체 불변이면서 인과력을 가지는 주체라는 점이다. 암스트롱의 임재적 보편자의 경우도 그것이 인과관계에 연루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월적 보편자와 동일하다.

다시 II의 1절에서 정식화한 암스트롱의 논증의 전제 ②로 돌아가 보자. 거기서 암스트롱은 초월적인 보편자가 전형적인 인과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인과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가 변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임재적 보편자는 초월적 보편자와 마찬가지로이다. 임재적 보편자 역시 다른 존재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 자신이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앞의 예에서 보듯이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변화한 것은 사태이지 결코 보편자가 아니다. 그리고 인과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사태가 아니라 보편자이다.

초월적 실재론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 입장에서도 초월적 보편자가 인과력을 가진 주체이며,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변화하는 것은 사태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을 초월해 다른 형이상학적 세계에 있다는 의미로 초월적 실재론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은 시공의 세계 바깥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공간을 상정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초월적 실재론자는 보편자를 예화하는 특수자에 대해 보편자가 독립적이므로 그것은 초월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즉 그 보편자는 그것이 예화된 것이나 그것을 예화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유리창의 모양이 날아온 돌멩이에 의해 변형된다고 할 때, 유리창이 예화하고 있는 모양 자체, 보편자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때 변화하는 것은 유리창이 어떤 시간에 어떤 보편자를 예화하고 있었다는 사태이다. 즉 보편자가 예화된 사태가 생성되거나

4) 초월적 실재론자들이 여기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입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라지면서 변화할 수 있지 초월적 보편자 자체는 불변이다.

이처럼 초월적 실재론자도 암스트롱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과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보편자가 인과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월적 실재론자는 보편자가 인과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다른 보편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자들을 예화한 사태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할 수 있다. 따라서 초월적 보편자가 전형적인 인과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력이 없다는 위의 논증은 성공적이지 않다. 암스트롱 자신도 이 논증이 자신이 초월적 보편자를 논박하는 주된 요점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sup> 이런 검토를 통해 그의 존재론의 일반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가 인과관계와 인과력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딜레마 논증의 첫 번째 뿔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 4. 인과적으로 완결된 시공의 체계 논증

암스트롱이 초월적 보편자를 논박하는 딜레마 논증의 첫 번째 뿔에 대한 주된 비판을 살펴보자. 그 비판의 핵심적인 논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재의 자연 과학에 의하면 시공의 체계는 인과적으로 완결된 체계이다.
- ②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과잉인과의 문제를 낳는다.]
- ③ 따라서 초월적 보편자는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갖지 않는다.

암스트롱 자신이 전제 ②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신의 개입이나 정신적인 것의 인과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

5) D. M. Armstrong (1977), p. 265 참조.

을 하는 것으로 보아 ②를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초월적인 보편자가 인과력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암스트롱의 두 번째 비판의 근거는 시공의 체계는 인과적으로 자기 완결적인 체계라는 점이다. 시공의 체계가 자기완결적이라는 점을 증명할 엄밀한 증거는 없지만, 그것은 현재의 과학 지식을 고려할 때 그것은 그럴 듯한 입장인 것 같다고 암스트롱은 받아들인다. 이 전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시공의 체계에 있지 않은 추상적 보편자는 인과적으로 닫힌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귀결되는가? 시공의 체계가 인과적인 닫혀있다는 것은 시공의 체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원인을 가진다면 그것은 시공의 체계에 있는 다른 사건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주장이 어떻게 바로 초월적 보편자의 존재를 배제하는가? 초월적 보편자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과잉 인과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서 초월적 보편자의 존재가 배제된다.

초월적 실재론자도 시공의 체계의 사태가 원인을 가진다면 그것은 시공의 체계의 다른 사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임재적 실재론자와 다른 점은 단지 사태를 특징짓는 속성의 본성이 시공의 체계의 특수자에 예화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초월적 실재론자는 어떤 시공의 사태는 궁극적으로 시공의 다른 사태에 의해 야기된 것이지, 시공의 체계에 예화되지 않은 초월적인 보편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시공의 체계에 예화된 보편자 이외에 예화되지 않은 보편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초월적 실재론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초월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암스트롱이 생각하듯이 과잉인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암스트롱은 시공의 체계 속에 예화된 보편자가 이미 인과력을 행사하므로 부가적으로 초월적 보편자가 인과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과잉인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과잉인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이미 임재적 보편자의 인과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월적 실재론자에

의하면 사태 속에 예화되어 있는 보편자는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에 예화되어 있는 것이므로, 초월적 보편자가 가진 인과력이나 그것이 예화되어 가지게 되는 인과력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과잉인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화된 보편자는 다름 아니라 초월적 보편자의 인과력을 행사하도록 예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월적 실재론과 시공의 체계가 인과적으로 단혀있다는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Ⅲ. 딜레마 논증의 다른 뿔에 대해: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답에 대해

이제 딜레마 논증의 다른 뿔을 살펴보자. 암스트롱은 다른 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시공의 체계는 확실히 존재한다.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만약 그 체계 바깥의 어떤 존재자가 가정되지만 그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정할 강제적인 이유가 없다.(Armstrong, (1977), p. 266)

이제 추상적 보편자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공의 체계에 아무런 인과력을 행사하지 않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고 암스트롱은 주장한다. 위의 논증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 1. 인과적 무기력 논증과 인과력의 원리

위에서 제시한 암스트롱의 논증은 아래와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 ① 만약 초월적인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하지 않

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②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의 기준은 그것이 시공의 세계에 인과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③ 초월적인 보편자는 시공의 세계에 인과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④ 따라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암스트롱은 이 논증을 할 때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트』에 나오는 ‘힘이 존재의 표지’(274d-e)라고 하는 소위 인과력의 원리를 거론하고 있다.<sup>6)</sup> 그 원리는 “만약 어떤 것이 힘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즉 그것이 그 어떤 가능한 결과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좋은 이유가 없다.”(Armstrong, (1977), p. 267)는 것이다. 원리 ②가 바로 인과력의 원리는 아니다. 원리 ②는 인과력의 원리와 암스트롱이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이 결합된 원리이다. 암스트롱은 먼저 시공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초월적인 존재자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초월적인 존재자의 존재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 암스트롱은, 시공의 체계를 전제할 때 이미 시공의 체계 내의 존재자와 비시공적 존재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시공의 체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초월적 보편자의 인과력이 미치는지 아닌지 따지기 위해서 양자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양자 간의 연관관계가 이미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에 대해 무력하다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초월적 실재론자는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들이는 시공의 존재자들은 초월적인 보편자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공의 사물들은 초월적인 보편자가 예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스트롱은 그럴 수 없다고

6) 이 원리는 엘레아에서 온 이방인이 제시한 것에 착안하여, 오디는 이것을 엘레아인의 원리(the Eleatic Principle)라고 부른다. G. Oddie (1982) 참조.

반박한다. 그가 시공의 체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월적인 존재자가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행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여기서도 암스트롱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시공의 체계가 초월적 존재자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이것이 바로 그가 증명해야 할 바로 그 주장이다.

여기서 필자는 암스트롱의 주장이 선결문제의 요구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 실재론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옹호된다 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초월적 실재론자 역시 시공의 체계를 인정할 때 초월적 존재자가 시공의 체계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현대의 초월적 실재론자는 이런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3절에서 초월적 보편자의 존재와 그것이 시공의 체계에 인과력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암스트롱은 여러 범주의 존재자를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인과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여러 범주의 존재자의 도입 근거와 인과력

앞 절에서 암스트롱이 자연주의를 옹호하는데 인과력의 원리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편자를 비롯하여 그가 인정하는 범주의 존재자들은 어떤 의미에서건 인과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 암스트롱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범주의 존재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도입되었으며, 또 그것들은

---

7) 이에 대해서는 Tooley(1977) 참조. 예를 들면, 톨리(Michael Tooley)는 예화되지 않은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대표적인 초월적 실재론자이다. 그는 자연법칙이 규칙성 이상의 지위를 가지려면 예화되지 않은 보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월적 실재론자의 이런 논증에 대한 옹호는 자연법칙에 대한 논의를 수반해야 하므로 여기서 이것을 상세히 논의하기는 어렵다.

인과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앞서 암스트롱은 잠재적 보편자, 결핍된 특수자, 충만한 특수자, 사태를 존재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밖에 그는 자연법칙이라는 범주도 받아들인다.

암스트롱은 존재의 기준이 인과력이라는 엘레아인의 원리를 보편자(속성)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 인과력을 수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속성에 대해서만이라는 뜻이다. 앞서 II절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잠재적 보편자는 인과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보편자로 인해 어떤 것이 변화할 수 있다. 어떤 보편자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수여하는 인과력에 의해 결정된다. 속성 이외의 다른 범주의 존재자들, 즉 결핍된 특수자, 충만한 특수자(사태), 자연법칙은 인과력을 수여하는 주체는 아니다. 이런 존재자들은 인과력에 연루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과력에 연루되어 있다. 암스트롱은 후기의 저서에서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모든 것은 세계의 인과적/법칙적 질서에 **모종의** 기여를 해야 한다. **모종**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자가 이런 기여를 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자, 속성, 사태, 원인과 법칙들은 스스로 기여를 하지만, 모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한다. [...] 이것들은 상이한 **인과적 역할**을 한다. (원문 강조; Armstrong, (2004), pp. 37-8)

여기서 암스트롱은 존재한다는 것은 인과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기준 대신에 인과적 역할을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전자는 인과력을 수여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의 인과적 구조에 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 암스트롱은 사태들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암스트롱에 의하면 속성은 시공의 체계에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보편자의 예화의 원리에 의해 그는 사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태는 어떤 의미에서 인과적 역할을 하는가? 사태는 바로 인과의 관계항이 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에 연루되어 있다.



사태 속에 예화되어 있는 보편자가 인과력을 행사하고 사태는 보편자가 예화되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범주이다.

그렇다면 결핍된 특수자의 존재는 어떤가? 이것 역시 예화의 원리에 의해 도입된다. 결핍된 특수자는 사태에서 보편자들을 추상하고 남는 시공의 위치이다. 물론 사태로부터 그것에 예화된 보편자를 실제로 분리할 수 없다. 보편자는 언제나 사태 속에서 결핍된 특수자에 의해 예화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핍된 특수자는 명백히 인과력을 수여하지 않는다. 결핍된 특수자 역시 인과력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자가 예화되는데 요구되는 존재이다. 보편자가 결핍된 특수자와 함께 사태 속에 예화되지 않고는 인과력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핍된 존재자는 인과력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이제 속성의 경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 암스트롱은 속성의 본성을 정언적인(categorical) 것으로 간주한다.<sup>8)</sup> 그에 의하면, 속성은 어떤 조건하에서 발현하는 성향이나 힘이 아니라 그 자체 본성을 가진다. 물론 그 속성이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속성이 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우연적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그런 성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속성의 본성을 조건부의 힘이 아니라 정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암스트롱의 입장은 심지어 아무런 인과력을 갖지 않는 속성도 허용할 수 있다. 어떤 류의 인과력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속성의 본성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속성이 인과력을 가진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어떤 속성이 어떤 인과력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간주한다. 그는 자연 법칙이 논리적 필연성은 아니지만 규칙성 이상의 필연성을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법칙은 모든 가능세계에 동일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속성들이 존재하는 두 가능세계에서 상이한 법칙이 지배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각 세계 내의 동일한 속성은 동일한 내적인 본성을 갖지만 상이한 인과력을 갖게 된다.

8) 속성에 대한 정언주의(categoricalism)와 그것의 귀결에 대한 논의는 D. M. Armstrong (1997), pp. 80-83; (2000), pp. 35-36 참조.

법칙에 의해 각 속성이 갖는 인과력이 설명된다 해도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극단적인 경우에 속성이 전혀 인과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속성이 갖는 내적인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이 갖는 내적인 본성이 인과력이 아니라면, 속성의 존재 유무와 그것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암스트롱에게 있어서 인과력은 속성의 존재 기준이기도 하지만 속성의 동일성 기준이기도 하다. 그는 속성의 내적인 본질 간의 차이는 수적인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실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자연법칙의 도입에 의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sup>10)</sup> 암스트롱이 자연 법칙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 첫째, 자연 법칙이 없다면 속성이 가진 인과력의 역할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법칙의 존재는 중요하다. 둘째, 자연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단순한 규칙성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커다란 난점을 가지게 된다. 암스트롱은 자연 법칙이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1)</sup> 그렇다면 법칙의 경우 암스트롱이 의미하는 인과적 역할은 무엇인가? 법칙 역시 직접적으로 인과력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다. 법칙은 보편자, 혹은 사태들의 관계이다. 보편자들이 사태 속에서 인과력을 수여하며, 그런 인과력의 수여가 단순히 규칙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상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법칙은 세계에 대해 인과적 역할을 한다.

### 3. 속성과 보편자 그리고 인과력

이제까지 우리는 보편자의 경우 그것이 특수자에 수여하는 인과력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존재자들은 다른 요구 때문에 암스트롱이 도입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보편자는 인과력을 수여하

9) D. M. Armstrong (1997), pp. 168-169.

10) 암스트롱의 정언주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희정 (2009) 참조.

11) 자연법칙에 대해서는 D. M. Armstrong (1997), pp. 223-230.

지만 그것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은 보편자를 시공에 예화하거나, 보편자들 간의 필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인과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암스트롱은 왜 보편자와 그 외 범주의 존재자들에 대해 완전히 다른 존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전자에 대해서는 인과력과 직접 결부시키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결부시키는가? 머포드가 암스트롱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이 결정할 문제이다. 철학자들은 그들이 제 1철학을 할 때 존재하는 것들의 범주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여 그런 범주들 안에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단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암스트롱은 아주 추상적인 방식으로 자연주의를 진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Mumford, (2007), p.6.)<sup>12)</sup>

머포드가 지적한대로 실로 암스트롱은 속성의 존재는 바로 인과력에 의해 판단되며, 어떤 속성이 존재하는가는 미래의 완성된 과학이 말해줄 것이라고 한다. 어떤 속성이 존재하는가는 과학이 말해줄 것이라는 암스트롱의 말에 동의해보자. 그렇지만 속성이 초월적 보편자인지, 임재적 보편자인지 아니면 트롭인지는 과학이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제 1철학이 말해 줄 것이다. 암스트롱에 의하면 제 1철학은 존재자들의 근본 범주를 논의하는 철학으로서 그것은 후험적으로가 아니라 선험적으로 탐구된다.

속성의 존재 기준이 인과력이라는 점에 대해 초월적 실재론자와 암스트롱 모두 동의할 수 있다. 이들 간의 문제는 그것이 초월적인가 임재적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지만 과학 자체가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 1철학의 문제이므로 선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이 경험적 증거와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것에 의해 지지되

12) 제 1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Armstrong (1977) 참조.

어야 한다. 현대의 초월적 실재론자는 ‘경험적 증거’의 지지를 받으면서 속성이 속하는 범주가 무엇인지 선험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초월적인 보편자가 시공의 바깥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상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시공의 체계와 단절되고 아무런 연관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식이라는 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암스트롱은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의 현상과 연관을 맺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당연시한다.

우리가 시공계를 초월해 있는 존재자들을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변적이고 불확실한 가정을 하는 것이다. 만약 그 가정이 시공의 현상들 중 일부나 그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옹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가정된 존재자들이 우리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며 게다가 그것과 연루된 인과적이거나 법칙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면, 그 가정은 설명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한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를 부인해야 한다. (Armstrong, (1989a), pp. 7-8)

그는 초월적 보편자가 시공의 체계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을 시공의 체계와 아무런 연관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가정하기 때문에 초월적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였던 것 같다. 현대의 초월적 실재론자는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화되지 않은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할 뿐이다. 예를 들어 툴리가 자연법칙에 규칙성 이상의 필연성이 요구되며 예화되지 않은 보편자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는 것은 단지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공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시공의 세계에 예화된 인과력과 연관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에서 초월적 보편자가 가진 인과적 역할이 시공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희정 (2007), 「암스트롱의 보편자 실재론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와 양립하는가?」, 『철학적 분석』 16호, 219-39쪽.
- \_\_\_\_\_ (2009), 「속성의 본성에 대한 암스트롱의 이론의 문제」, 『대동철학』, 제46집, 71-89쪽.
- Armstrong, D. M. (1977), “Naturalism, Materialism and First Philosophy,” *Philosophia* 8, pp. 261-276.
- \_\_\_\_\_ (1978), *Universals and Scientific Realism*, vol. I and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Universals: An Opinionated Introduction*, Boulder: Westview Press.
- \_\_\_\_\_ (1997), *A World of States of Affai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The Causal Theory of Properties: Properties according to Shoemaker, Ellis and Others,” *Metaphysica* 1, pp. 5-20.
- \_\_\_\_\_ (2004), *Truth and Truthma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mford, Stephen (2007), *David Armstrong*,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 University Press.
- Oddie, Graham (1982), “Armstrong on the Eleatic Principle and Abstract Entities,” *Philosophical Studies* 41, pp. 285-295.
- Tooley, Michael (1977), “The Nature of Law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74, pp. 667-98.

## ABSTRACT

## Armstrong's Naturalism and the Principle of Causal Power

Kim, Hee-Jeong

According to Armstrong's naturalism in a strong sense, reality is merely a total spatio-temporal system. He raises a question whether transcendental entities have causal affects on this system. He tries to defend his naturalism by refuting **both answers** of transcendental realist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Armstrong's naturalism is incompatible with his immanent realism on universals. I agree to that point.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Armstrong's arguments for his naturalism by focusing on causal power. In section I, I present Armstrong's arguments against naturalism in a weak sense. In section II, I argue that Armstrong's objections on the first horn of the dilemma have difficulties. In section III, I argue that Armstrong's refutation of the answer on the second horn is not successful. I argue that he is, here again, begging the question. In the end, I show that the existence of transcendental universals is compatible with their causal connections to our spatio-temporal system.

**Keywords:** naturalism, causal power, the Eleatic Principle, transcendental universals, thin particulars